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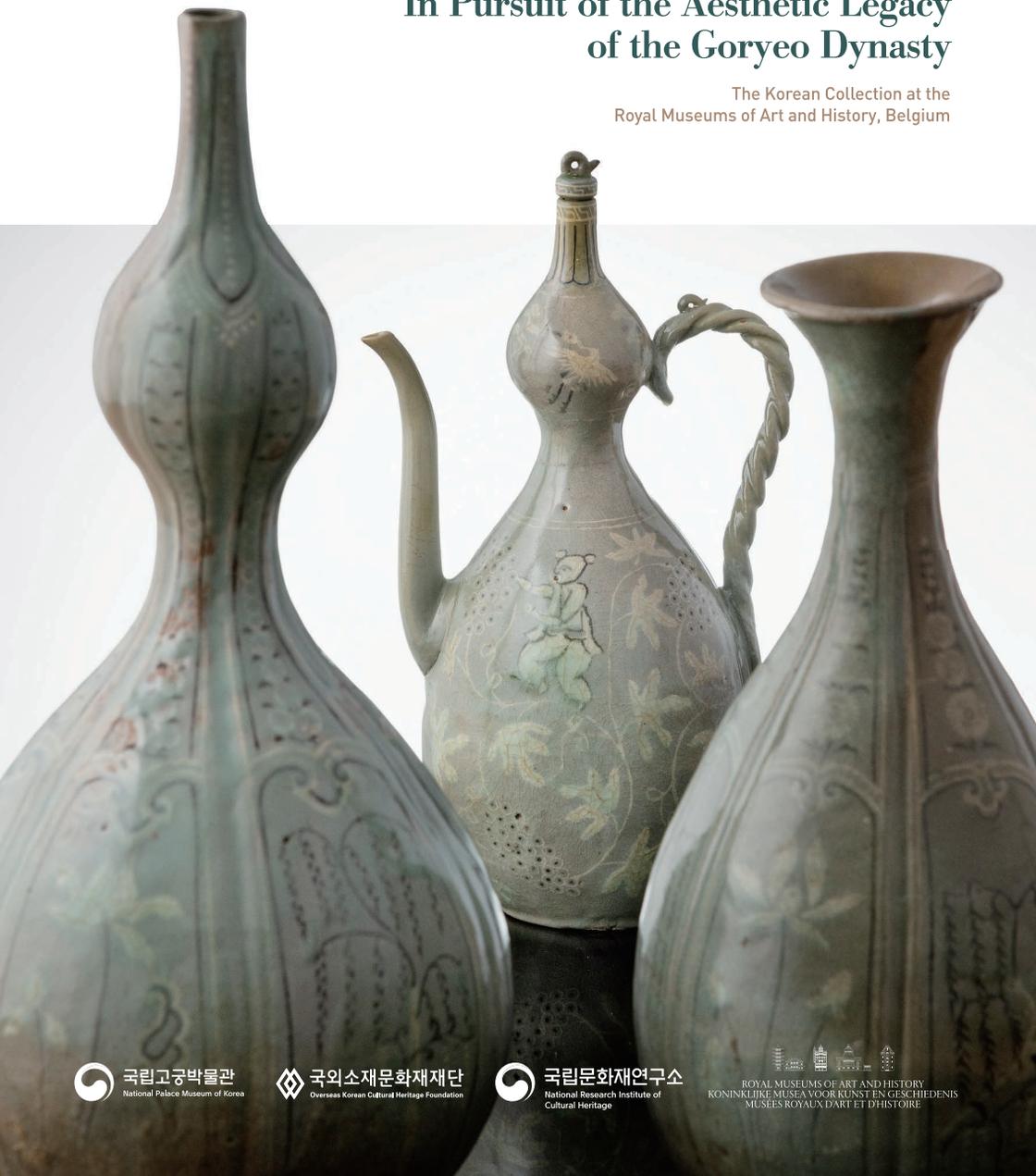
고려 미美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색色

In Pursuit of the Aesthetic Legacy of the Goryeo Dynasty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Royal Museums of Art and History, Belgium



전시를 열며 Introduction

우리 박물관은 보존·복원 처리를 끝내고 제 모습을 되찾은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공예품 여덟 점을 특별 공개합니다. 한국문화재는 현재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20만 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적절한 시기에 상태 점검을 받고 안전하게 보존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국외 소재 문화재 보존·복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처리를 마친 우리 문화재는 국내·외 전시와 연계 심포지엄을 통해 공개되며, 세계 곳곳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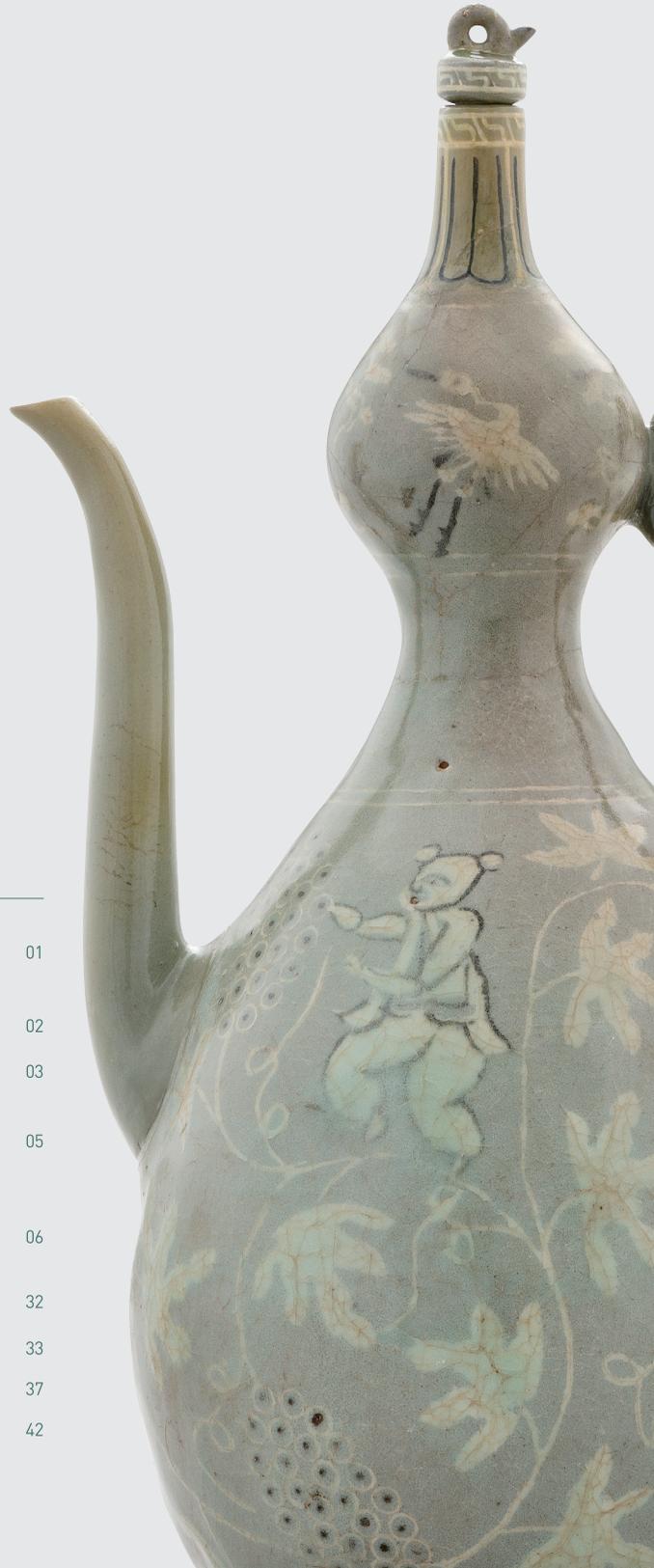
올해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복원을 진행한 여덟 점의 우리 문화재가 소장처인 벨기에로 돌아가기 전 국내에서 처음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온전한 미감과 색상을 되찾은 고려시대 공예품이 지닌 의미와 매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is pleased to present a special exhibition of eight pieces of artworks from the Goryeo Dynasty that are part of the collections of the Royal Museums of Art and History in Brussels, Belgium. This exhibition has been organized to mark the completion of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treatment of the eight works. Some 200,000 object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are currently being housed at overseas institutions in more than twenty countrie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in Korea have been conducting the "Overseas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Support Project" to ensure that this Korean cultural heritage has its condition examined in a timely manner to secure its preservation and appropriate utilization. Works that complet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programs are presented to the public through exhibitions and related symposia at home and abroad. In this light, the proje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ring the aesthetics and historical value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worldwide.

This year, eight works that underwent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treatment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ill be presented to the Korean public prior to being returned to their home institution in Belgium. The exhibition will offer an opportunity to discover the meaning and beauty embedded in these Goryeo craftworks that have been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목차

전시를 열며	01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02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수집품에서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품이 되기까지	03
1946년 프랑스 세르누치박물관 '한국예술전'과 언론 보도	05
제 모습을 찾은 고려 공예	06
전시 유물 보존처리	32
금속기 보존처리 과정	33
도자기 보존처리 과정	37
유물 별 보존처리	42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Royal Museums of Art and History (RMAH), Belgium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왕립예술역사박물관은 벨기에 정부가 1835년 역사박물관 건립을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벨기에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박물관으로, 예술역사박물관Art&History Museum, 극동 박물관Museums of the Far East, 할레 관문Halle Gate, 악기박물관Musical Instruments Museum 네 분관이 있다. 박물관 소장품은 30만 점 이상이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럽뿐 아니라 이집트, 인도, 티베트,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역과 다양한 시기를 아우르고 있다. 이 중 한국문화재는 도자기를 위주로 100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 한국실은 아시아미술 전시실에 1994년부터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개편 공사로 인해 임시 폐쇄 중이다.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전경

© Royal Museums of Art and History, Belgium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수집품에서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품이 되기까지

How Korean Ceramics from the Collection of Victor Collin de Plancy Entered the Collection of the Royal Museums of Art and History, Belg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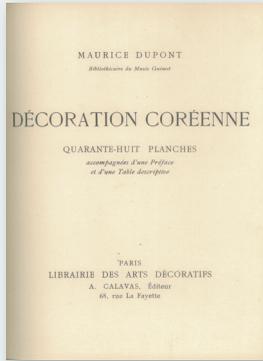
이번 전시에 출품된 고려청자 6점 중 5점*은 1888년 조선에 파견된 최초의 주駐 조선 프랑스 공사公使인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1853~1922)의 수집품이었다. 플랑시는 1886년부터 1891년, 1896년부터 190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3년 간 조선에 머무는 동안 한국문화재를 다방면으로 수집했다. 특히 당시 유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도자기에 큰 애정을 가지고 방대한 양을 모았다. 일부 도자기를 프랑스 세브르국립도자 박물관Musée national de la Céramique à Sèvres과 국립기메동양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 등에 기증하며 한국 문물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한 이번 출품된 고려청자 4점은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사서였던 모리스 듀퐁Maurice Dupont(1873~1949)이 1927년에 발간한 『한국의 장식미술Décoration Coréenne』에 흑백 사진으로 실리기도 했다. 여기에 이 4점의 출처가 브와스 르벨 컬렉션Collection de M.Bouasse-Lebel이라고 적혀 있어, 플랑시 수집품이었던 청자의 소장처가 1927년 당시에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플랑시의 고려청자는 브와스 르벨 컬렉션을 거쳐 1946년과 1947년에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었다.**

* 5점은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발>,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발>,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병>,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표주박 모양 병>,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이다.

** 유물 소장 경위는 벨기에왕립예술박물관에서 제공한 소장품 카드 정보를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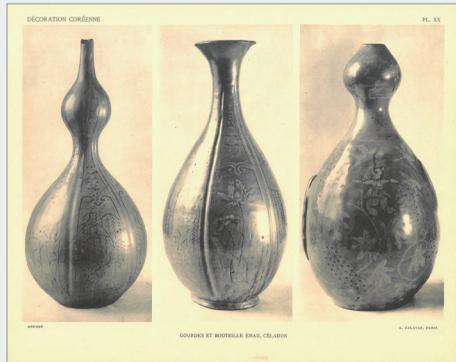




모리스 듀퐁, 『한국의 장식미술』
Décoration Coréenne

1927년
세로 33cm 가로 25cm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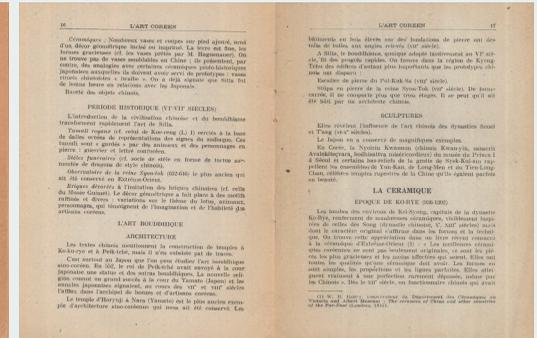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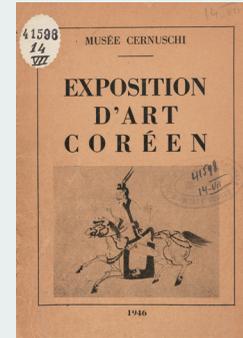
프랑스 국립기대중앙박물관 사서 모리스 듀퐁(1873~1949)이 1927년에 펴낸 책이다. 이번에 출품된 청자 중 4점이 브와스르벨 컬렉션Collection de M.Bouasse-Lebel으로 실려 당시 소장처를 알 수 있다.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가 주구注口와 손잡이 없이 소장되다 추후 복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장식미술』에 실린 이번 전시 출품작들(위), 현재의 모습(아래) 주자의 주구와 손잡이가 없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46년 프랑스 세르누치박물관 ‘한국예술전’과 언론 보도

The Exhibition of Korean Art Held at Musée Cernuschi in 1946 and Media Coverage



세르누치박물관 ‘한국예술전’(1946) 브로슈어,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제공

고려청자는 1946년 프랑스 세르누치박물관 Musée Cernuschi에서 개최한 ‘한국예술전 Exposition d'art Coréen’에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 중 하나로 출품되었다. 그중 이번 전시에 출품된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병>도 전시되었다. ‘한국예술전’에서는 한국이 예술 전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나라 중 하나로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같은 해 프랑스 신문, 잡지 등에서도 이어졌다.

1946년 4월 11일자 『르 몽드Le Monde』 기사에서는 전시를 소개하고 평론하였는데, 특히 한국의 청자를 “특색이 있어 한 눈에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술의 사랑 L'amour de L'art』 4월호에 세르누치박물관 직원 자닌 오보와이에 Jeannine Auboyer가 투고한 「한국의 도자기 La Céramique Coréenne」에서는 ‘한국예술전’이 한국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재조명했음을 밝히고 한국 청자의 독특함에 대해 기술했다. 또한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병>을 소개하였는데, 출처가 빌리 컬렉션Collection de Billy이라고 되어 있어 당시에는 프랑스 대사였던 로베르 드 빌리M. Robert de Billy의 소장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946년의 전시나 기사들은 프랑스에서 한국 도자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점차 높여갔음을 보여준다.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서 1946년과 1947년 사이에 고려청자를 여러 점 구입한 것은, 프랑스에서 1946년에 이루어진 평가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의 사랑』(1946.4.), 「한국의 도자기」에 실린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병>,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제공

제 모습을 찾은 고려 공예

Goryeo Dynasty Crafts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국의 소재 문화재 보존·복원 지원 사업’으로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고려시대 상감 청자 6점, 금속 공예 2점이 보존·복원 처리를 마치고 이번 전시에 출품되었다. 상감 청자는 고려청자 중에서도 독창적인 미감이 반영된 공예품으로, 상감 기법은 고려청자 장식 기법 중에서도 장식적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 상감 청자 6점에 장식된 무늬는 모두 고려시대에 널리 유행한 유형으로, 버드나무·갈대·연꽃 등과 함께 새가 어우러진 물가 풍경 무늬, 구름과 학을 표현한 운학 무늬, 포도 넝쿨과 동자가 조합된 무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금동 침통과 청동 정병 또한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01

금동 침통
金銅針筒
Gilt-bronze Case for
Acupuncture Needles

고려
높이 6cm 지름 1cm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얇은 구리관에 넝쿨과 연꽃 등의 무늬를 정교하게 새기고 표면을 금으로 도금한 공예품으로, 의료 도구인 침鍼을 넣어두던 침통으로 보인다. 침통은 고려시대 왕실이나 귀족층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장신구의 역할을 겸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123년(인종 1)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절 서공徐兢이 지은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는 “고려 땅에 금과 은은 적으나 구리는 많다.”고 하여 고려에 동으로 만든 공예품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이 뚜껑이 없는 상태로 1947년 구입했다.



윗면



아랫면



펼친 모습



펼친 모습 일러스트



02

청동 정병
靑銅淨瓶
Bronze Kundika

고려
높이 36.6cm 몸체 지름 12.7cm
굽지름 9.9cm 최대 너비 16.5cm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깨끗한 물을 담아 부처님 앞에 바치는 용기로, 승려가 가지고 다니던 물병에서 유래하였다. 정병에 담긴 물은 중생의 모든 병과 고통을 치유 해준다고 믿어져 왔다. 서긍의 『신화봉사고려도경』에는 “정병은 존귀한 사람과 나라의 관원, 도관과 사찰, 민가에서 다 쓰는데, 다만 물을 담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 정병은 주성분이 구리, 주석, 납의 합금인 청동으로 주조한 뒤 별도의 무늬를 장식하지는 않았다.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에서 1968년에 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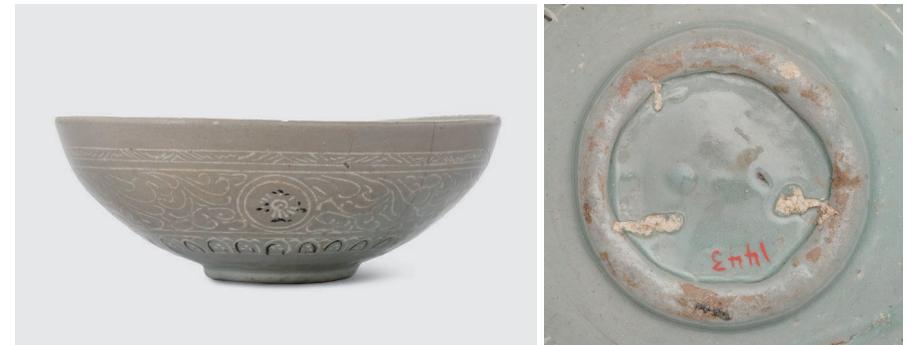


03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발
靑磁象嵌雲鶴文鉢
Celadon Bowl with Inlaid Crane
and Cloud Design

고려 | 14세기 전반
높이 7.5cm 입지름 20.7cm
굽지름 7.4cm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그릇의 안쪽 면에 구름 사이를 날고 있는 네 마리의 학 무늬를 균일하게 넣은 전형적인 고려 후기 작품이다. 14세기 고려 왕실 납품용으로 만들어진 간지干支가 있는 상감 청자와 무늬 구성이나 배치가 유사하다. 1888년 최초로 조선에 주재駐在한 프랑스 공사公使인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 Victor Collin de Plancy(1853~1922)의 수집품 중 하나였다. 이후 1946년 6월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이 구입하였다.





04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발
靑磁象嵌雲鶴文鉢
Celadon Bowl with Inlaid Crane
and Cloud Design

고려 | 14세기 후반
높이 9.2cm 입지름 21.2cm
굽지름 6.9cm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그릇의 안쪽 면에 구름 사이를 날고 있는 네 마리의 학 무늬를 균일하게 넣은 전형적인 고려 후기 작품이다. 바깥 면에는 도식화된 국화 무늬를 원 안에 있는 것과 번갈아 8곳에 배치하였다. 14세기에 고려 왕실에 공급하는 청자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간지를 새긴 간지명 청자와 무늬의 구성이나 배치가 비슷하다. 구름과 학 무늬는 고려시대에 도교 문화가 성행·확대되면서 꾸준히 애호되었다. 특히 13세기에 청자 표면에 무늬를 파내어 조각한 후 그 안에 다른 색상의 흙(자토나 백토)을 넣어 청자 바탕색과 흑백의 대비 효과를 내는 상감 기법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장식 무늬가 증가하였다. 1943년에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이 개인 소장가에게 구입하였다.





05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발
 青磁象嵌蓮池柳蘆水禽文鉢
 Celadon Bowl with Inlaid Willow
 and Waterfowl Design

고려 | 14세기 후반
 높이 9.4cm 입지름 20.6cm
 굽지름 6.5cm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그릇의 안쪽 면에 버드나무, 갈대, 연꽃 사이를 헤엄치는 물새가 있는 물가 풍경을 묘사한 전형적인 고려 후기 작품이다. 14세기에 유행한 고려 왕실 납품용 간지가 있는 상감 청자 중 주를 이룬 물가 풍경 무늬 청자와 소재, 구성이 유사하다. 바깥 면에는 간략화된 국화 무늬를 세 곳에 배치하였다. 본래 프랑스 수집품이었으나 1927년에 발간된 『한국의 장식미술 Décoration Coréenne』에 브와스 르벨 컬렉션 Collection de M.Bouasse-Lebel으로 실려, 소장처가 중간에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946년 6월에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이 구입하였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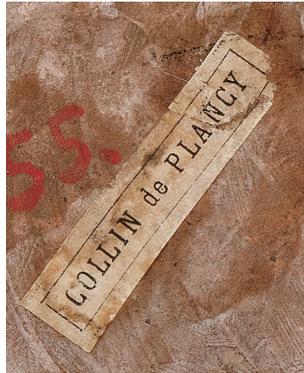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병
靑磁象嵌蓮池柳文瓶
Celadon Bottle with Inlaid Lotus
and Willow Design

고려 후기
높이 36cm 입지름 8.5cm
굽지름 7.1cm 최대 지름 17.5cm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몸체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윗부분에는 국화 무늬를, 아랫부분에는 연꽃과 버드나무가 피어 있는 물가 풍경을 표현한 병이다. 본래 플랑시가 수집한 것이었으나 그 후 브와스 르벨 컬렉션, 빌리 컬렉션을 거쳐 1946년 7월에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품이 되었다. 1946년 프랑스 세르누치박물관 Musée Cernuschi에서 열린 '한국 예술전 Exposition d'art Coréen'에 출품되었다. 또한 프랑스 월간 잡지 『예술의 사랑 L'amour de L'Art』 1946년 4월호에 실린 「한국의 도자기 La Céramique Coréen」에 고려청자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때 빌리 컬렉션으로 언급되었다.







바닥면에 붙어 있는 'COLLIN de PLANCY' 종이라벨

07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표주박 모양 병

靑磁象嵌蓮池柳蘆水禽文瓢形瓶
Celadon Gourd-shaped Bottle with
Inlaid Willow and Waterfowl Design

고려 후기
높이 44cm 입지름 1.6cm
굽지름 10.9cm 최대 지름 20.5cm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술 등을 담는 표주박 모양 병으로, 현재 전해지는 표주박 모양 병 중에서도 크기가 큰 편이다. 몸체를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아랫부분에 각각 연꽃, 버드나무, 갈대, 물새가 있는 물가 풍경을 묘사했다. 물가 풍경 무늬는 고려시대 공예품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특히 상감 청자에 많이 등장하는데, 상감 기법은 흑백 대비를 이용한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해 장식적인 효과가 뛰어났다. 이 병은 폴랑시가 수집한 도자기 중 하나로, 병의 바닥면에 'COLLIN de PLANCY'라고 적힌 종이 라벨이 붙어 있다. 『한국의 장식미술』(1927)에는 브와스 르벨 컬렉션으로 실려 중간에 소장처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947년 1월에 벨기에 왕립 예술역사박물관이 구입하였다.







08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

靑磁象嵌葡萄童子文瓢形注子
Celadon Gourd-shaped Ewer with
Inlaid Grapevine and Boy Design

고려 후기

높이 33.2cm 입지름 1.6cm

굽지름 14.7cm 최대 너비 18.9cm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어린 아이[동자童子]가 포도 넝쿨 사이로 노니는 모습을 장식한 표주박 모양 주자로, 주자는 술이나 차 등을 담고 따르는 용기이다. 몸체의 윗부분에는 구름 사이를 날고 있는 학 무늬를 표현하였다. 동자 무늬는 자손 번영을 상징하는 길상 무늬로 12~14세기 고려청자에 자주 등장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계층이 사용하였다. 주로 여러 명의 동자가 모란, 연꽃, 국화 등 식물 넝쿨과 어우러져 나타나는데, 표주박 모양 주자에서는 특히 포도와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자는 빅토르 콜랭 드 폴랑시가 수집한 도자기 중 하나였으며, 브와스 르벨 컬렉션을 거쳐 1946년 6월에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이 구입하였다.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의 복원을 위해 참고한 대표 유물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
고려, 높이 33.7cm
미국 세인트루이스아트박물관 Saint Louis Art Museum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
고려, 높이 34.5cm
국립중앙박물관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
고려, 높이 30.5cm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유물 보존처리

Conservation Treatment of the Exhibited Works

이번에 보존처리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고려시대 상감 청자 6점과 금속 공예 2점이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를 실시했다. 대상 유물의 보존처리에 앞서 상태 관찰이나 사진 촬영과 같이 맨눈으로 확인 가능한 조사부터 시작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물의 재질과 내부 구조, 과거의 보존·복원 이력 등에 대한 처리 전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각 유물의 재질과 상태에 따라 보존처리를 했다. 금속 공예는 부식이 지속되는 것을 최대한 늦춰 안정화하는 것을, 청자는 변색되거나 기존에 불안하게 접착되어 있던 부분을 제거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다시 붙이는 것을 기본으로 진행되었다.



금속기 보존처리 과정

Conservation Treatment Process for Metal Objects

〈청동 정병〉 보존처리

①

처리 전 상태 조사와 과학적 분석 Preliminary Survey and Scientifi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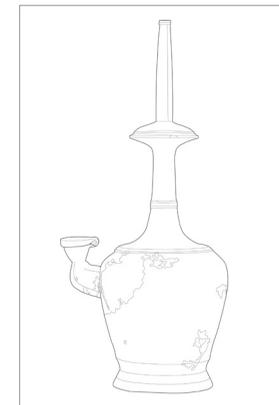
보존처리에 앞서 X선 조사, 컴퓨터 단층촬영[CT], 자외선[UV] 촬영, 내시경 촬영, 실체현미경 조사 등을 통해 내부 구조와 형태, 보존 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금속 재질에 적합한 보존처리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형광분석기[XRF], 주사전자현미경[SEM-EDS] 등으로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동 정병〉은 구리-주석-납의 청동 합금을 주조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외선 조사를 통해서도 합성수지 등 본래의 유물 재질과 다른 재료로 보수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 몸체 상단과 바닥면 그리고 주구에서 합성수지로 보수한 흔적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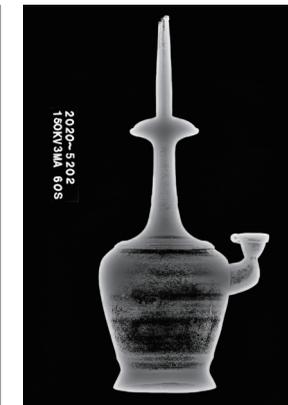
성분 분석



내시경 조사



실측 도면



X-ray



자외선[UV]

세척 및 부식물 제거 Cleaning and Corrosion Removal

표면에 부착된 흙이나 오염물, 단단하게 고착된 부식물을 제거하였다. 오랜 시간 생성된 부식물은 유물과 단단히 결합해 유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여 모두 제거할 경우 원형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존 상태에 영향을 주는 유해한 부식화합물이나 원형과 관련 없는 오염물만 제거하였으며, 유물에 남아 있는 가공 흔적이나 미관상 크게 거슬리지 않는 보수 흔적은 최대한 남겼다. <청동 정병>의 표면은 전체적으로 녹색을 띠는 청동 부식물이 뒤덮고 있으며, 이들 중 제거가 필요한 부식물은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해 제거하였다. 모든 부식물과 오염물 제거가 완료된 후에는 에틸알코올과 이온수를 50:50으로 혼합한 용액에 침적시켜 분말 형태의 오염물을 최대한 제거하였다.



초음파 스케일러를 통한 부식물 제거

안정화 및 강화 처리 Stabilization and Consolidation Treatment

구리를 기본 소재로 제작된 <청동 정병>의 부식 억제를 위해 벤조트리아졸Benzotriazole[BTA]로 안정화 처리를 했다. BTA는 구리와 반응하여 구리에 염화물 이온이 침식하는 것을 저지하는 피막을 만들며, 이는 부식을 방지한다. 강화 처리는 부식되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유물의 재질을 강화시키는 과정이다. 겔은 녹으로 덮여 있고 내부에는 다수의 균열이나 틈이 있어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아크릴계 합성수지인 파라로이드Paraloid B72 10% 용액을 주입시켜 표면을 코팅시키고 재질을 강화 처리하였다.



안정화 처리



강화 처리

복원 Restoration

〈청동 정병〉은 첨대 尖臺의 상단부 꼭지 일부가 깨지고 결실된 상태로, 유물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실부의 복원이 필요했다. 첨대의 입구 안쪽 형태에 맞게 OHP 필름을 끼우고, 유성점토로 결실부 복원편을 만든 뒤, 정병에서 분리하여 석고틀에서 숙경화 에폭시 수지로 복제하였다. 복제한 결실부 복원편은 결실 부분의 잘린 면과 일치하도록 가공하고, 가역성이 있는 니트로셀룰로오스계 접착제(세메다인 Cemedine-C)로 접합하여 언젠든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접합한 이후에는 주변 색상과 유사하게 색 맞추어 이질감이 없도록 하였다.



결실부 복원 전



결실부 복원 후



결실부 복원 과정

도자기 보존처리 과정

Conservation Treatment Process for Ceramics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 보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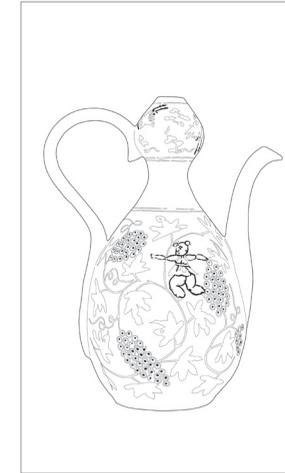
①

처리 전 상태 조사와 과학적 분석 Preliminary Survey and Scientific Analysis

보존처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 유물의 상태를 파악했다. 유물의 크기와 무게 등을 측정하고, 정밀한 현미경 관찰을 통해 표면 상태를 조사했다. 내부 구조·형태를 삼차원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하는 컴퓨터 단층촬영[CT]과 X선 조사, 과거 보존·복원된 부위를 확인하는 자외선 조사를 실시했다.



보존처리 전 사진



보존처리 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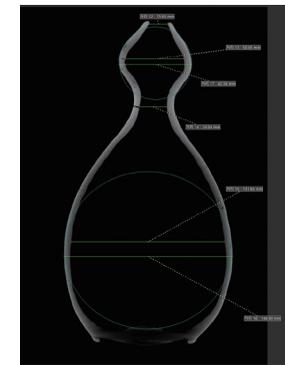
3D 현미경을 통한 상감 파단면 관찰



성분 분석



X-ray



컴퓨터 단층촬영[CT]



자외선[UV]

해체 및 세척 Dismantling and Cleaning

유물의 구조가 불안정하거나 미적 가치가 떨어지는 등 재처리가 필요한 대상에 한하여 해체를 했다. 해체는 과거 보존·복원에 사용된 재료를 파악한 후 같은 재료로 사전 실험을 하여, 유물의 손상 없이 해체할 수 있는 용제와 방법을 적용했다. 유물 본래의 조직이 아닌 오염 물질은 물리·화학적으로 세척했다. 이때 제거된 오염물은 그 시대의 생활사나 유물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수습하여 분석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화학적 세척



물리적 세척



습식 세척



아랫박



분리된 윗박



분리된 기존 복원물(손잡이, 주구)

접합 Bo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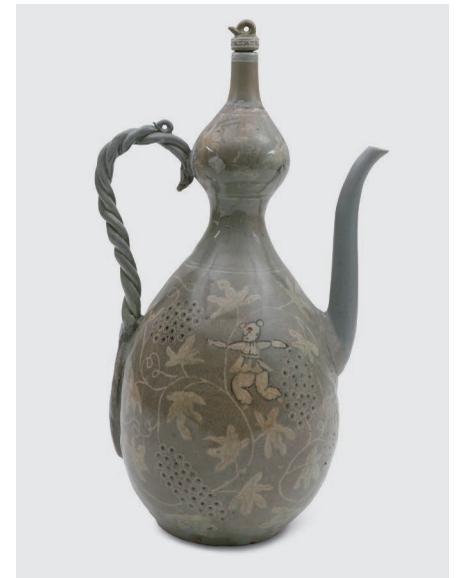
접착력 및 재료적 안정성, 접성, 가역성 등을 고려하여 파손된 유물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접합했다.



임시 접합



1차 접합



2차 3D printing 접합

복원 Restoration

편 가장자리 틈과 결손 부분을 메우고 필요한 경우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의 경우 3D 프린팅 결과물을 이용하였다. 주자의 손잡이, 물이 나오는 주구, 물을 넣는 수구水口와 뚜껑을 레진으로 프린트하여 유물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유물의 형태를 갖추었다.



주자 3D 프린팅 이미지



주자 뚜껑 3D 프린팅 이미지

색 맞춤 Color matching

메우거나 복원된 부분의 색이 유물 색과 이질감을 주지 않도록 주변과 유사하게 색감과 질감을 맞추었다. 아크릴 물감, 무기 안료 등을 이용하여 세심하게 보존처리를 마무리했다.



유물 별 보존처리

Conservation Treatment by Artifact Type



금동 침통



보존처리 전

몸통에는 일부 파손 흔적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며 유물관리 번호가 남아 있음



보존처리 후

부식물 제거, 안정화 처리와 강화처리를 통해 외부 환경에 취약한 금속 공예품의 보존 상태를 향상시키고 유물관리 번호를 제거함



청동 정병



보존처리 전

표면 전체에 이물질과 부식물이 두껍게 고착되어 있고, 물을 넣고 빼는 침대(尖臺)의 꼭지 일부가 깨진 상태임



보존처리 후

이물질과 부식물을 제거하고, 부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안정화 및 강화 처리를 함. 깨진 꼭지 부분에 복원 조각을 만들어 연계는 제거가 가능하도록 접합함



청자 삼감 구름 학 무늬 발



보존처리 전

일본의 긴쓰기(金継ぎ) 기법(옷 혼합 접착제로 붙인 후 금가루로 채색하여 마감하는 장식 기법)으로 처리함



보존처리 후

과거에 사용된 옷과 긴쓰기를 제거 후 분리된 편은 한 몸처럼 무늬와 색상을 연결해주고, 양쪽의 균열은 유물에 손상 없이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재료로 채워 더 이상 균열이 연장되지 않도록 처리함



청자 삼감 구름 학 무늬 발



보존처리 전

소성 당시의 결함으로 구연부에서 균열이 시작되었고, 이 파손 부위를 일본의 긴쓰기(金継ぎ) 기법으로 처리함



보존처리 후

과거에 사용된 옷과 긴쓰기 방식을 제거하고 본래의 무늬가 연결 되도록 보존처리함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받



보존처리 전

약 20조각 이상 파손되었던 것을 석고로 집합·복원하였는데, 색 맞추이 변색되고 집합면 마감이 균일하지 못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



보존처리 후

진체를 해체 후 유물에 손상 없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 성질의 집착제로 다시 붙여 보존처리함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병



보존처리 전

병 입구 부분 중 두 군데에서 보존·복원된 흔적을 확인함



보존처리 후

변색된 색만 지워내고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다시 색 맞추어 보존처리함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표주박 모양 병



보존처리 전

6각으로 된 병 입구의 일부가 과거에 보존·복원된 흔적을 확인함



보존처리 후

과거 흔적을 제거하고 유물의 손상 없이 제거 가능한 재료로 표면을 코팅한 후 에폭시계 수지로 복원하여 색 맞추함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



보존처리 전

손잡이와 주구注口의 과거 복원 내용을 확인함. 현재 남아 있는 고려청자 표주박 모양 주자들의 모양·각도·크기·무늬 등을 종합하여 비교한 결과, 기존 복원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함



보존처리 후

주구, 손잡이뿐 아니라 물이 들어가는 수구水口와 뚜껑까지 복원해 완형을 갖추. 복원은 전문가 자문과 현존 유물 조사 등을 종합하여 비교한 결과, 가장 적합한 조건의 형태로 진행함. 특히 손잡이는 대다수의 '청자 상감 포도 동자 무늬 표주박 모양 주자'에 사용된 꼬임 형태로 하였으며, 몸체에 남아 있는 단서를 조합하여 세 줄 꼬임 손잡이로 복원함

고려 미美

벨기에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색色

In Pursuit of the Aesthetic Legacy of the Goryeo Dynasty

The Korean Collection at the
Royal Museums of Art and History, Belgium

2021.09.08. ~ 10.17.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오시는 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정류소에서
걸어서 5~10분
- 주차 경복궁 동편 주차장 사용(유료)

국립고궁박물관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Tel. 02-3701-7500
Fax. 02-734-0775
www.gogung.go.kr

